

너무 올랐네 ‘물가 쇼킹’...살수가 없네 ‘쇼핑 한숨’

양념류 등 국민 가공식품 32개 중 24개 1년 새 평균 15% 올라 티셔츠 14%·청바지 11%↑...의류·신발 올들어 5~8%대 상승

“뭘 샀다고 이렇게나 많이 나왔는지?”
 지난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유모(여·39)씨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다.
 유씨는 “계란 한 판에 8000원이 넘는다”면서 “아이 먹이려고 반찬 재료 몇 개 샀는데,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도 1인분에 5000원을 넘어서는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광주의 한 백화점 아동복 매장. 네 살 아이를 겨울 재킷을 사러 왔다는 오모(여·38)씨도 생

각보다 비싼 아이 옷값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다.
 오씨는 “날이 쌀쌀해져 아이 겨울 옷 좀 몇 벌 사 주려고 나왔다가”며 “옷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다. 점퍼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장바구니 담기 부담’...국민 가공식품 32개 중 24개 가격↑=전반적인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들 가장 많이 찾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24개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도 절반이 넘는 13개나 됐다. 가격이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5.3%였다.
 품목별로 보면 햄 10g당 가격이 지난해 10월보다 37.7%나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케첩(100g·36.5%), 된장(100g·29.6%), 간장(100ml·28.6%), 참기름(10ml·27.8%), 카레(10g·25.4%), 마요네즈(100g·24.1%)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밖에 우유(100ml·13.8%), 설탕(100g·11.3%) 등 필수 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15% 안팎의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상 품목의 가격은 유통업체 할인 등이 반영된 실제 판매가를 평균한 것이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의 할인 행사 여부에 따라 판매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봐

도,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상승 폭이다.
 최근 들어서도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32개 다소비 가공식품 가운데 20개 품목의 가격이 9월에 비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유와 어묵, 참기름, 된장, 콜라, 컵밥, 즉석밥 등을 중심으로 3~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각종 전정 등 국제 정세가 악화하면서 곡물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옷 사는 것도 부담’-티셔츠 14%·청바지 11%↑=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겨울을 앞두고 옷 가격 역시 크게 오르는 추세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의류·신발 물가 지수는 지난달 112.32(2020년=

100)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1% 올랐다.
 1992년 5월(8.3%) 이후 3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달 의류·신발에 포함되는 25개 품목 물가 모두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티셔츠(14.3%), 여자 하의(13.7%), 원피스(13.7%), 유아동복(13.7%), 청바지(11.8%), 남자 하의(10.9%) 등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갑과 운동화도 각각 17.3%, 7.8% 상승했다.
 올해 들어 의류·신발 물가는 1월 5.9%, 2월 5.8%, 3월과 4월 6.1%, 5월 8.0%, 6~9월 7.8%로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이다.
 광주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와 외출 감소 등으로 떨어지던 옷값이 최근 들어 다시 반영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하고 경품 받자

광주은행 ‘절세타더 IRP’ 행사... 내년 2월 29일까지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絶稅)타더 IRP’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절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연금제과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형 IRP 신규(적립/퇴직) ▲추가가입금 및 연금계좌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총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내년 2월 29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 유지 중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3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쿠폰, 신세계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개인형IRP 신규는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 IRP를 신규하고 5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쿠폰(1만원권)을 제공한다.
 추가가입금 및 연금계좌이체는 기존에 보유한 개인형 IRP에 추가 입금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개인형 IRP를 광주은행 IRP로 계좌 이체 시 금액 구간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경우 200명에게 신

세계상품권(1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또 500만원 이상의 경우 60명에게 신세계상품권(2만원권), 1000만원 이상의 경우 30명에게 신세계상품권(3만원권)을 제공한다.
 TDF 상품 판매·운용은 이벤트 제휴사인 키움투자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의 TDF 상품으로 입금 또는 자산 교체 시 금액 구간에 따라 30만원 이상 문화상품권 5000원권(100명), 50만원 이상 문화상품권 1만원권(30명), 100만원 이상 문화상품권 2만원권(10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수익률이 전 금융권 통틀어 1위를 차지하며 2분기 연속 수익률 1위를 기록해 광주은행의 연금자산 운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배민영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절세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퇴직연금 자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최고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용 전기료 10.6원 인상...월평균 200만원 오를 듯

내일부터 전압별 인상폭 차등화...가정·업소·중기용 동결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

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엔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48.9%)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한전은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 부

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200만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400만원으로 부담이 2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도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효성,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2천만원 지원

효성은 지난 7일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진행된 ‘제13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식’에서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효성은 고전영화 복원 작품인 ‘수학여행(1968)’과 애니메이션 ‘태일이(2021)’의 배리어프리 제작을 지원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장애인 인식 제약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을 음성해

설로 설명하고 대사, 소리, 음악 정보를 배리어프리 자막으로 제공하는 영화다.
 효성은 2017년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배리어프리 제작을 시작으로 7년간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 ‘우리들’, ‘남매의 여름방’, ‘삼야식당’ 등 13편의 영화를 배리어프리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다.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지원에는 회사의 금전적인 지원 뿐 아니라 효성 임직원의 노력 봉사까지 더해

진다. 올해에는 두 명의 효성 임직원이 각각 ‘수학여행’과 ‘태일이’의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음성 소개 녹음에 참여했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시각 장애인용은 음성 소개 영상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과 외양 묘사 등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효성은 장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 장애인예술창작센터 입주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후원하고, 온누리사랑챌러 오케스트라 후원을 통해 발달 장애인 청소년의 음악 활동을 돕는 등 다양한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계설비 탄소중립’ 기계설비의날 기념식 열려

기계설비의날기념식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인호)는 8일 제8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선포식’도 진행됐다.
 기계설비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탄소중립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교육,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기계설비 탈탄소화 정책 제안 및 그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 등 총 8개의 실천방안이 담겼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AI, IoT

, 로보틱스, 빅데이터, BIM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하여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을 잘 정착시키는 물론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 대한설비공학회(회장 정재동),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 대한설비설계협회(회장 변운섭) 5개 단체와 6개 유관단체로 구성돼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지방세무사회, 조선대 미술대생에 장학금 1500만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지난 7일 조선대학교 미술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대 회화학부 서양화 전공 23명은 이날 광주세무사회 회관에서 ‘아름다운 동행’ 전시회를 열었다. 세무사회는 앞서 지난 10월 조선대와 세무·회계분야 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예술분야 전공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 육성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게 됐다.
 김성후 회장은 “우리 세무사회 회관에 사학의 명문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멋진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지역 청년들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조선대 관계자 및 학생들이 전시회 및 장학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제공>

한편, 광주세무사회는 조선대 LINC 3.0 사업단과 협업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회원 세무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분야 실무능력을 교육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전원 취업을 알선·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에너지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식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광주지역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에너지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 고용 현안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실무자들과 함께 광주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상의는 지역산업계를 중심으로 일자리 현안에 적합한 이슈 발굴 및 고용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광융합·가전·스마트 뿌리산업, 모빌리티, 인공지능·데이터, 에너지 등 크게 4개 산업군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실

무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기업 실무자들이 대부분 참석하여, 에너지 신산업 진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상황과 정부, 지자체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R&D지원과 함께 에너지 분야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1.62(-22.34)
↓ 코스닥	811.02(-13.35)
↓ 금리(국고채 3년)	3.868(-0.019)
↑ 환율(USD)	1310.60(+2.70)

7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농협, 다문화가족 초청 ‘힐링캠프’ 실시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남지역 농촌 다문화가족 50여명을 초청해 ‘다함께 힐링캠프’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나주중흥골드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농협의 협력사업인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과정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와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다수 참가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한국 전문문화 체험, 가족 공감·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다문화 가족이 농업·농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